

[바둑]

‘어린 왕자’ 박영훈 퍼펙트 우승

GS칼텍스배 원성진 꺾고 2차방어 성공

‘어린 왕자’ 박영훈 9단이 GS칼텍스배 프로리그 2연패를 거뒀다. 박영훈은 지난 9일 서울 한국기원에서 열린 제13기 GS칼텍스배 도전 5번기 3국에서 원성진 9단을 260수 끝에 불계로 물리치고 타이틀 방어에 성공했다. 지난 대회에서 이세돌 9단을 상대로 2연패 후 3연승의 극적인 승리를 거뒀던 박영훈은 원성진의 도전을 3-0으로 일축하며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박영훈은 GS칼텍스배 결승에서 만 거침없는 6연승을 한 셈이다. 또 4년 전 GS칼텍스배 결승에서 이창

호 9단에게 내리 3연패 하며 타이틀을 뺏긴 아픈 기억도 잊게 됐다. 이날 박영훈은 원성진이 초반 하변의 집을 너무 쉽게 허용한 덕을 많이 봤다.

일찌감치 원성진을 막판에 몰아넣었던 박영훈은 하변 전투에서 선제 득점을 올린 이후 원성진의 조급한 행마를 적절히 공략해 나가며 손쉽게 승리를 얻어냈다. 중반 이후 원성진은 하변을 버리는 대신 좌변 대마를 노렸지만 박영훈의 튼튼한 방어에 막혀 결국 두 손을 들어야 했다.

박영훈은 이번 우승으로 지난 3월 맥심배 우승 이후 계속됐던 부진을 씻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지난해 박영훈은 농심신라배 4연승, 기성전 3연패, 후지쓰배 우승, GS칼텍스배 우승 등을 거두며 한국프로랭킹 3위까지 올랐지만 최근 부진의 늪에 빠져 8위까지 밀렸다.

하지만 이번 승리로 박영훈은 지금까지 치러왔던 도전기를 모두 다 방어하는 진기록을 작성했다. 그동안 박영훈은 기성전(올해 중단) 4회 우승과 GS칼텍스배 2회 우승까지 도전기로 치러지는 기전에서 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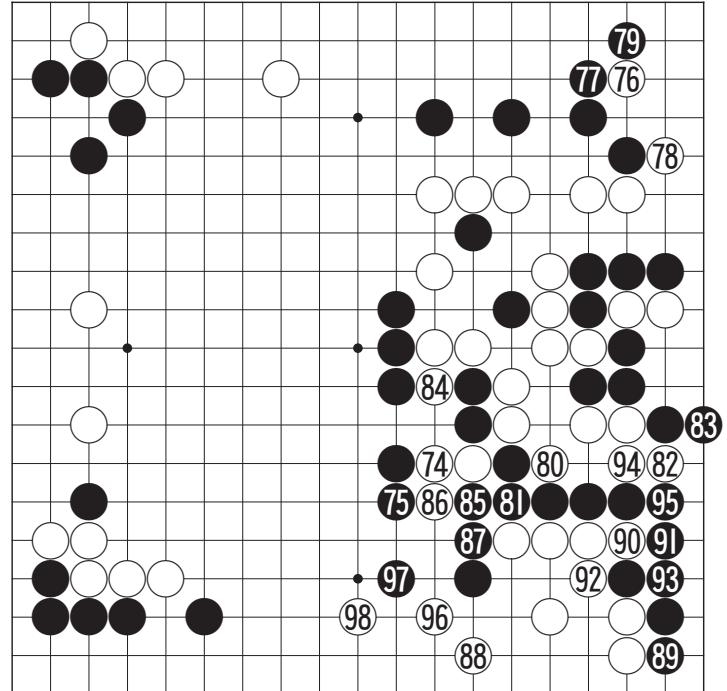
지난 9일 서울 한국기원에서 열린 제13기 GS칼텍스배 도전 5번기 3국에서 박영훈 9단(오른쪽)이 원성진 9단을 꺾고, 타이틀 방어에 성공했다. (사이버오로 제공)

6번의 우승을 차지했다. GS칼텍스배 2회 우승을 기록한 박영훈은 역대 최다우승 횟수도 이창호 9단에 이은 역대 2위를 기록했다. GS칼텍스배 최다우승은 이창호 9단이 작성한 5회이다.

이번 대회는 매일경제신문사가 주최하고 GS칼텍스에서 후원했으며, 제한시간은 각 3시간 60초 초읽기 5회이며, 우승 상금은 5천만원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제89회 전국체전바둑대회 백, 눈부신 활약

페어부 결승전 5보 (74~98)
白 함영우·송예슬 黑 오창석·이수빈 (전라남도) (경기도)



백 80으로 단수하고 82로 막아간 것이 아가부터 노리던 곳이다. 이곳을 차단당하자 제법 커보이던 흑 집이 불품 없게 줄어들고 이제는 사는 것마저 염려해야 된다. 그래서 애초에 우변을 두텁게 남겨놓았던 것이다.

전보에서 우려하던대로 백 76으로 우상귀에 쳐들어간 것이 적절한 타이밍이다. 흑 77로 막아 넘겨준 것은 어쩔 수 없다. 이 수로 ‘참고도 1’의 흑 1로 내려서는 것은 백 2 이하 8까지 크게 살려주게 된다. 또 ‘참고도 2’의 흑 1로 빈삼각으로 두면 ‘가’가 선수므로 백 2로 내려서고 4로 달려 손쉽게 살게 된다. 그래서 흑 77, 79로 후퇴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흑 85 때 백 86으로 지른 수가 질긴 수로 흑 모양에 흠집을 남기고 있다. 그런 다음 88로 달려 실리를 챙기며 은근히 흑 대마를 위협하고 있다. 백 98까지는 백이 눈부시게 할만 약한 모습으로 이제는 실리에서도 백이 할만한 형국으로 보인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이세돌, 딱 한걸음 남았다

하이원배 결승 3국, 강동윤 꺾고 2승1패



목진석 9단이 지난 10일 서울 한국기원 4층 특별대국실에서 열린 제52기 국수전 도전 5번기 3국에서 이세돌 9단을 196수 끝에 불계로 물리쳤다. (사이버오로 제공)

이세돌 9단이 제36기 하이원배 명인전 결승 5번기 3국을 승리로 장식하며 우승에 한 발 다가갔다. 이세돌은 지난 8일 서울 한국기원에서 열린 이 대회 결승 5번기 3국에서 강동윤 8단을 185수만에 불계로 꺾고, 결승 전적 2-1로 앞서나갔다. 2국의 패배가 못내 아쉬웠을까. 강동윤은 초반부터 적극적인 포석으로 이세돌 9단을 압박해 들어갔지만 생각만큼 관이 풀리지 않았다. 이세돌의 특목 쓰어대는 응수타인과 능수능란한 변신술에 이렇다 할

수를 찾아내지 못한 강동윤은 백기를 들었다. 이로써 이세돌은 남은 4, 5국에서 한 판만 더 이기게 되면 명인전 2연패를 달성하게 된다. 명인전 3국까지 올해 100판을 소화한 이세돌은 공식 대국 93전 70승23패를, 비공식 대국으로 집계되는 중국리그에선 7전 전승을 기록했다. 최다대국 2위인 목진석 9단과 7판이나 차이나 2008년 최다대국 1위 달성은 일찌감치 확보한 상태이다. 계속되는 4국은 장소를 옮긴다. 오

는 22일에 열린 4국은 명인전 후원사인 하이원리조트에서 시작된다. 국내 최고 우승상금 1억원을 자랑하는 제36기 하이원배 명인전은 바둑TV가 주최하고 한국기원이 주관하며 하이원 리조트와 한국일보가 후원한다. 결승전은 사이버오로와 바둑TV, 하이원 리조트 홈페이지에서 감상할 수 있다. 제한시간은 각 2시간 60초 초읽기 3회이며 리그전 1,2위가 결승 5번기로 우승자를 가리는 선수권전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목진석, 끝나지 않은 ‘국수’ 꿈

이세돌 꺾고 2연패 탈출 추격 발판 마련

목진석 9단이 비랑 끝 위기에서 탈출했다. 목진석은 지난 10일 서울 한국기원 4층 특별대국실에서 열린 제52기 국수전 도전 5번기 3국에서 이세돌 9단을 196수 끝에 불계로 물리쳤다. 이로써 목진석 9단은 비랑 끝 위기를 탈출하고 1-2로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야말로 ‘싸움닭’들의 전투국이었다. 정신없이 휘몰아치는 ‘센돌’의 공격에 곧 돌을 거둘 것 같았던 목진석은 숨겨뒀던 ‘한방’을 날렸다. 이 한방(백94)은 이세돌의 급소를 정확하게 찔렀다. 이후 두 기사는 물고 물리는 씁쓸한 몸싸움을 벌였다. 먼저 지진 쪽은 이세돌이었다. 허점이 노출되자 목진석은 상대의 약점을 정확히 응징했고, 결국 백기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이 경기 해설을 맡은 양건 8단은 “두 기사 모두 대단하다. 목진석 9단이 상식을 초월한 수읽기로 대역전극을 이끌어냈다. 정말 멋진 대국이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승부가 결정난 뒤 목진석은 “겨우 한 판이 끝났을 뿐이다. 인터뷰는 승부가 끝난 다음에 하고 싶다”고 말을 아꼈다. 목진석은 이날 대국에서 승리하며 이세돌에게 당했던 8연패(지난해 5월부터)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되갚았다. 역대전적에서는 20승14패로 이세돌 9단이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 제52기 국수전 도전 5번기 4국은 2009년 1월 5일 속개될 예정이며 장소는 아직 미정이다.

“프로 입단 신고합니다”

‘연구생 퇴출’ 강창배·박시열 입단대회 통과

강창배(22·사진 오른쪽) 아마 7단과 박시열(19) 아마 5단이 연구생 퇴출(?)의 아픔을 딛고 프로 입단에 골인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제117회 입단대회를 통해 초단에 등극했다. 이 대회 본선 3회전 첫날 하성봉 아마 7단에게 패하며 불안한 출발을 보

였던 박시열은 막판 2연승의 독심을 보여며 입단에 성공했다. 또 바둑 팬들에게 아마최강자로 더욱 친숙한 강창배도 프로 반열에 당당히 이름을 새기게 됐다. 강창배와 박시열은 각각 2승1패의 성적으로 입단에 성공했다. 강창배 아마 7단과 박시열 아마



5단의 입단으로 한국기원 소속 프로기사는 총 235명으로 늘어났다. 강창배는 2008년 제26회 덕영배 아마대왕전 우승, 2007년 국무후리배, 삼성화재배 아마바둑오픈, 이창호배 우승 등을 차지한 유망주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장수 9단, 네번째 일본왕좌 올라

장수 9단이 네 번째 일본왕좌에 올랐다. 지난 8일 일본 시즈오카현 이즈에서 열린 제56기 일본왕좌전 도전5번기 4국에서 도전자인 장수 9단이 타이틀 보유자인 야마시타 게이코 9단을 271수만에 2집만으로 누르고 왕좌 타이틀을 차지했다. 이번 대국은 시중 미세한 형세를 유지하다가 끝내기 단계에서 장수 9단이 발 빠른 행마를 펼치면서 득점, 승기를 잡았다.

야마시타 게이코는 도전3국에서 비랑 끝 반격을 시작하며, 타이틀 방어의 의지를 불태웠으나 결국 장수 9단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로써 장수는 6관왕(명인, 천원, 왕좌, 기성, NHK, 아함동산)에 오르면서 사실상 일본의 1인자로 등극했다. 또 지난 4월 천원 타이틀을 획득한 지 8일만에 왕좌 타이틀을 추가하면서 생애 통산 27번째 우승을 기록하게 됐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수완 롯데쇼핑 옆 최고상권!!

분양 펠리스 타워 임대

수완지구 25,000세대 아파트 입주시작

층	면적	권장업종
1층	15평~200평	금융방, 안경, 커피숍, 약국, 제과점 등 판매시설
2층	200평	홈리스토랑, 병원, 단란주점, 노래방
3~6층	각200평	병, 의원, 학원, 독서실등
7층	200평	휘트니스 클럽
8층	50평	스카이 라운지

※면적 15평 부터 분할가능

펠리스 타워 분양사무실 062) 954-0031
010-7723-1033

금당부동산

☎(062)223-7400 ☎016-632-5659
(충장로5가 사거리 2층, 금남로 5가와 엔터시네마 중간)

매매·교환·개발·건축부동산을 구하며 최선을 다해 해결하겠습니다.

공시가·감정가 70%이하

- 광장 중앙 힐스테이트 단지 1472건평 863 방상7기 6억 7천 원과 3억 6000 만도 3억
- 금남로 대237 건평462 공사142억 6천 원 일부는 공실 전세9500원 월 2635만원 대도시1억
- 군산 고속버스터미널 6차선 도로면 단지256 건평 367 작2호 15억에 대입했음 8999원
- 능성동 200평 공사7기 9억2천 대594천
- 백운동 로터리 모퉁이 단란주점 단지91 건평 294 대입195천 공사원래 6000만 3억
- 대인동 공주은행본점 건너 단지 517평 4층 건물 156평 공사14억 대도 3949천
- 우산동 건물중의 4층 95평 대입 4억7500 원형 2억 9000만 특시설 2억 3000만
- 신안동 4차선도로면 상업지 83평 공사7기 394천 7천 3억5천 2억2000만원
- 서동 단지 467㎡1417평 건물 170 방상7기 7억 8500 만방자 1년 395천
- 광명동 해운대 영암중학교 경유에서 20호 단지 233 건평 382 건평 995천 대도 594천
- 광산구 우산동 단지165 건평624 전세84000원
- 백운동 200평 단지 4억4천 대도 594천
- 백운동 200평 단지 162 건평 223 평형 시옥 등 2억 7천 797천 원 대도 494천
- 석정동전철 1081 건평762 방상7기 2억4천 원 빌터도 2억 2000만원 10억

감정가이하

- 조선대 정문 부근 6차선 도로 6층 건물 단지 2372평 648 대도 18억5천
- 유동 상일지 233평 공사7기4
- 차평동 빌딩 단지 306 건평806 대도시1억
- 동원동 단지 154 건평750 전세4950원 월1400 지하와 5층 일부는 공실 28억
- 화남동 단지 84 건평 287 여건이며 고사료이며
- 일원동 266평 26기 공사4억3천 대도 5억
- 학동 도로면 주유소 대2348 건평91 대도시1억 11억 원 원호의 필요하고 교차로11억
- 화평동 지하주차 부근 단지115 주역과 4층 건물 공사1595천 대도 682천

투자

- 두원동 나드리 83평 공사7기 대도시1억 2천 367 작2호 15억에 대입했음 8999원
- 487평도 사용 월 1000, 전월주세액 3억2천
- 시산동 부동산 호텔 가능 부근 단지 1417평 388 평 시설, 복사시설 등 2억 1999원
- 사립주재 화순주재 소재지 101평 주재은 수리제어대 대도 19000원
- 신안동 상업지 180평 29497천 대도시 2억 9000만 15억

매도·교환

- 남원동 6차선 도로면 355평 대입된 용도로 사용가능 건물과 교환 가능 4억
- 수기동 재입 2150평 12층 5방형 대도 1억 4천 원대는 전세 2천 600 만
- 여주시 출산동 한림원 가는 길 국도 쪽 일야 704평 영일사출과 교차로 89200원
- 시영동 200평 주재 6000만 3억 2000만
- 대평동 200평 주재 6000만 3억 2000만
- 송정리 아파트 상가 3층 50평 학원 대관도점등 2억 196400 대도 195천
- 송정동 공구상가 1층과 2층 25평 분방이 2억 3천 대입된 대관도점등 2억 195천
- 서구정 부근 도로면 주재 150평 5억 원용·아파트부지·아파트·주역
- 양동 123평 공사7기 394천 대도 294500
- 서동 143평 공사7기 대도 196500
- 아파트 운영용 부근 1차 3층 56평 195천
- 이전해 갈 물건
- 충원동 57기 단지 59 건평 228 대도시 5억

호남방으로 생각을 이동하라!

호남방

아파트·주택·전문중개업체

☎062-383-3007

www.honambang.com (주소창에 호남방)

아파트를 파실 때나 사실 때에는 즉시 전화하세요! 바로계약! 사랑방·벼룩시장 무료광고!!

광고비는 호남방이 부담합니다.

호남방공인중개사 (광주본점)

상무랜드공인중개사

☎(FAX)383-5221 ☎011-609-5221 (구 상무대 정문)

▶빌딩

- 보통급 37억/월세 3,200만원
- 대기 85억
- 보통급 20억/월세 4,000만원
- 대기 85억
- 보통급 30억/월세 2,000만원
- 대기 55억
- 보통급 5억/월세 2,000만원
- 대기 34억

▶토지

(상무지구 중심상업지역)

- 2,800㎡(850평) 3.3㎡당 1,300만원
- 727㎡(220평) 3.3㎡당 1,200만원(유류기)
- 450㎡(135평) 3.3㎡당 850만원(유류기)
- 489㎡(147평) 265평 평당 1,500만원

▶기타용도

- (농원) 그린빌73,000㎡(220천평) 평당 9만원(농산물)
- (주유소부지) 상가용 430평 평당 220만원(주유소허가) 특
- (전원주택지) 화순 사서리 전원주택지 부양 평당65만원(18세대 통호인 주택으로 적합)
- (독립주택부지) 대단위 아파트단지 510평 단독사유나 적합용도로 지하수기반 완료 매가가 45억
- (학원, 장례식장) 용산구(지대) 지 대포면 3,000평 평당 250만원

▶기타투자

- 현금45억 투자 호물 111억수익
- 현금35억 투자 월 대도시 6,000 만원

★맞춤추천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드리며, 편리하실 만큼 도와드립니다. 아무 때나 전화 주십시오.

다우공인중개사

☎523-8114 ☎011-603-1308 (용문지구 현대3차 사거리)

▶용봉지구 상가건물(신축)

- 대360㎡/건841㎡(지상4층)/12m도로면 코너/용5억6천만/보2억 3천 795만원/매가 12억7천만

▶용봉지구 상가건물(신축)

- 대437㎡/건870㎡(지상4층)/15m도로면 코너/용6억2천만/매가 13억5천

▶최고급 무인텔(직영)

- 대2,057㎡/건2,248㎡/각실28/용15억/매가 28억원

▶태양광발전소 및 전원주택지

- 임28,200㎡/1,000KW 발전사업허가특/매가 3억5천만

▶창고부지 및 전원주택지

- 임14,109㎡(주거지역 8,870/그린벨트5,239)/현재 임대수익/매가 8억5천만

저희 사무소는 건축중개 의뢰한 물건만 취급합니다.

대인등심일부동산

☎(062)223-1140, 5210 ☎011-602-2522 (광주은행 신분점, 대인동 소방서건대면)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들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 시내 전지역 상가점점 포가 형형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 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이지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시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던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